

독립운동가 후손 광주 고려인 '대한민국 국민' 됐다

박노순 선생 손녀 박림마 등 5명 국적 얻어 '자력 취득 첫 사례' 광주 7000명 중 한국 국적 취득 10여 명...정부 해결책 모색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가족이 법무부로부터 한국 국적을 받아 '한국인'이 됐다. 광주 고려인 중에서 국제 결혼이 아니라 자력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독립운동가 박노순 선생의 후손으로 밝혀진 고손자 우가이 예고르(8)군 등 5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예고르군 외에도 고손녀 최 빅토리아(여·22)씨, 우가이 안젤리카(여·16)씨, 손승녀 우가이 타이아나(여·42)씨, 손녀 박림마(여·64)씨가 한국인이 됐다.

이들은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을 갖고 있었으며, 지난 2020년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함경남도 덕원군 출신인 박노순 선생은 1918년 노령 하바로프스크에서 적위군에 참가했으며 1919-1922년 연해주 '다반부대' 소속으로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다. 이후 일제 경찰에 체포돼서 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지

난 2008년 박노순 선생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7000여명 고려인 중 유일하게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가족이다. 고려인마을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인들은 독립운동가 선조의 계보를 증명하기 어려운 무명 열사의 후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려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취업이 자유롭고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져 큰 도움이 된다.

고려인들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방문취업 비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으로 정한 단순노무 분야에서만 취업할 수 있고, 재외동포 비자는 단순 노무, 유흥업 등에 종사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경우에는 방문동거(F-1) 비자를 받는데,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업종 외 취업이 전면 불가능하다. 이들 모두 3년여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도 안고 있다.

당장 취업이 어려워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이는 많지만 실제로 취득에 성공한 사례는 드물



우가이 예고르(오른쪽 두번째)군을 비롯한 고려인 가족들이 최근 한국 국적을 받고 지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고르군 가족 제공)

다.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거나 한국 국적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고려인 입장에서는 시험 난도가 높아 합격자가 극소수라는 설명이다. 광주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에 따르면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는 10여명 남짓이며, 이 중 국적시험을 통과한 경우는 없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자력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에 피란 온 '국적 없는 고려인동포'들 사이에서도 한국 국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현재 고려인마을에는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광주로 입국한 이후 총 420여 명의 고려인 동

포들이 거주 중이며, 이 중 60여명은 '무국적자'다.

이들은 1937년 옛 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터전을 잡고 농사일을 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카자흐스탄 등 국가에서는 국적 회복 신청을 받았으나 많은 고려인들이 시골에 살았던 탓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권조차 없는 무국적자들은 임시(G-1)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으며, 취업 제한은 물론 6개월마다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이들은 정부에 한국 국적이거나 재외동포 비자를 제공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금까지 3차례 광주 고려인마을을 찾아 무국적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으나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조야 대표는 "고려인마을에서 자력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이 나와 기쁘다. 다른 고려인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 무국적자들에게 짐 같은 일이다. 한국 국적은 커녕 변변한 일자리조차 얻기 힘들어 갈수록 위험한 직업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갈 곳 잃은 동포들을 위해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애-비장애인 통합형 '반다비체육센터' 전국 첫 개관

광주 북구 18일 개관식...수영장·체력단련실·카페 등 갖춰

'전국 1호' 반다비 체육센터가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개관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장애인 우선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반다비'의 이름을 딴 체육시설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다.

광주시 북구는 오는 18일 오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2025년까지 150개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구는 2019년 10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년여 간의 준공절차를 거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됐다.

개관식에는 앤드류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다.

광주교육대 안에 있는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연면적 4621㎡)는 지하1층-지상 2층 규모로 1층에 수영장(6레인), 아동풀(3레인), 가족 샤워실, 체력단련실, 카페, 스포츠용품점 등이 들어서 있

며, 2층에는 보치아, 배드민턴 겸용의 체육관과 북구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자리한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사회적 약자 및 모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턱이 없는 시설, 자동문 설치, 휠체어 활동 반경을 고려하는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 시설로 조성했다.

북구는 특히 광주권역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센터 내 가족 샤워실 3개를 맞춤형 편의조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전용 목욕시설로 활용한다. 목욕서비스 사전예약제 등으로 편의를 한층 더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졸피렘' 위해물건 지정...온라인상 활용 처벌

수면유도제 '졸피렘' 등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약물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판매하거나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뜻한다.

복지부는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증가하고 온라인에서 약물 음독 관련 자살 유발 정

보가 유포되는 추세에 대응해 관련 약물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고시에 구체적인 약물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등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졸피렘이 대표적으로, 졸피렘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나, 의존·중독성이 강해 항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

경찰, 7대 악성사기 대응 TF 구성...연말까지 대대적 단속

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범죄를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시도경찰청별로도 전담 TF나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규정한 7대 악성 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다.

전세 사기의 경우 2019년 검거 건수와 인원이 107건·95명에서 2021년 187건·243

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긴 하나 올 상반기 피해 금액이 3068억원으로 여전히 금액 면에서는 상당한 규모라 경찰청 내 '법정부합동 통합신고 대응센터'도 설립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다. 2019년 12월 서울대 보험연구원 집계 기준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누수액은 공영보험이 1조2000억원, 민영보험이 6조1000억원이었다.

경찰은 TF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악성 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기존에 해오던 보이스피싱 단속은 기한을 10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 방지와 회복 조처에 집중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추적 활동도 강화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 구분 | 이용기간 | 정상이용료 |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 | |
|------|------|-----------|-----------------------|--------------|--------------|
| | | | 30점 이상 (10%) | 40점 이상 (15%) | 50점 이상 (20%) |
| 정기회원 | 1개월 | 200,000 | 180,000 | 170,000 | 160,000 |
| | 3개월 | 570,000 | 513,000 | 484,500 | 456,000 |
| | 6개월 | 1,080,000 | 972,000 | 918,000 | 864,000 |
| | 12개월 | 2,040,000 | 1,836,000 | 1,734,000 | 1,632,000 |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